

## 우리의 건축은 문화인가

### Our Architecture as a Cultural Act

민현식 / 건축가, 한국예술종합학교 건축과 교수

by Min Hyun-Sik

요즘 학교에서 “도시탐험”이란 타이틀로 ‘기초설계 1’을 진행하고 있다. 일정도시 또는 도시의 일정구간을 탐험하듯 배회하면서 각자의 관심거리를 발굴해내는 도시를 읽는 훈련이다. 도시를 탐험한다는 것은 그것의 물리적 형상을 읽는 것이 아니라 축조물들에 의해 생겨나는 공간적 긴장과 그들이 담고 있는 조직을 이해하는 것이고, 따라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도시의 형성된 모양이 아니라 도시의 개별 요소들이 만들어 낸 상대적 관계이며 도시가 수용하고 있는 실제적 가치라는 점을 강조하며 도시를 보는 눈을 키워 가는 공부이다.

이번 학기는 수도권의 물문제로 한동안 시끄러웠던 양평(楊平)을 대상지로 하였다. 그러니 부제는 ‘양평읽기’가 된다. 문득 한 학생이 골목길의 한 집을 주목하고 그 집을 발미 삼아 ‘버나쿨라(Vernacular)’에 대한 공부를 시작하였고, 관심의 대상이 골목길 안의 판잣집(?)에서 큰길가의 번듯한 건물들까지 점차 확장되어 갔다.

내가 건네준 참고문헌은 버나드 루도프스키의 ‘건축가 없는 건축’ 즉보 없는 건축에 대한 짧은 소개(Architecture without Architect-A Short Introduction to Non-Pedigreed Architecture)와 존 B. 잭슨의 ‘버나쿨라’(Vernacular-Discovering the Vernacular Landscape), 조병수의 팜프렐 ‘현대의 버나쿨라’ 그리고 김소진의 소설들 등이었다.

일반적으로 버나쿨라라는 이 말은 무언가 촌스럽고 가내공업적이며 토속적 옛맛이 있는 그 무엇을 말하며 건축에 관련하여 얘기할 때는 시골이나 소도시의 전통민가나 농부, 장인들, 막노동꾼 등 하층 민중들의 주거를 일컫는다. 즉 별 볼일 없는 사람들의 별 볼일 없는 집들인 것이다. 요즘에 와서야 버나쿨라 건축이라 이름 붙여서 그것은 직업 건축가가 아닌 장인들에 의해서 그 지방의 기술과 재료로 그리고 기후와 전통, 지역경제 등 그 곳의 지역적 환경아래 만들어진 건축이라 그럴 듯하게 표현해 주고 있기는 하지만 뒤집어보면 같은 말이다.

이러한 관점이라면 지금 우리의 도시를 메우고 있는 대부분의 건축들은 실은 버나쿨라 건축이 아니다. 모든 건물들이 설계도면에 ‘조형창작 예술인으로서 창의력을 발휘하여 건축문화 창달에 이바지하는’ 건축사들의 도장이 찍힌 엄연한 건축가가 있는 건물들이기 때문이고 소위 현대적 건축사조를 따르고 있기 때문이며, 면허가 있는 전문 시공업체에서 공사가 맡겨졌을 것이기 때문이다. 루도프스키의 말을 빌린다면 소위 ‘즉보 없는 건축’이 아니다. 그런대도 불구하고 이 학생의 눈에 이들 건물들이 버나쿨라로 보인 까닭은 무엇인가.

건축의 해가 아니고 문화라는 꼬리표가 유난히도 마음을 거슬리는 건축문화의 해가 이제 반쯤 지나가고 있는 시점에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건축은 문화였는가?’를 다시 스스로에게 물어본다. 만일 아니라면 이 학생의 논리대로 우리도시를 메운 대다수의 건물들이 버나쿨라일 수밖에 없다.

70년대 중반부터 갑자기 불어온 오일 달러의 중동특수를 등에 업고 숨가쁘게 진행되어온 조국근대화 프로젝트는 경제제일주의와 개발자상주의를 우리사회의 지선(至善)의 가치로 상정하게 하였고 그것의 물리적 증거가 바로 건설현장이었다. 이런 탓으로 건축=개발이라는 등식이 무리 없이 받아들여졌고 경제발전의 주역으로 행세해온 건축은 경제의 논리이래 자본의 법칙에 따라 운용되어 왔다. 자연히 그곳에 문화가 끼어 들리 만무하고 건축은 부동산으로만 환산되며 건축행위는 시장바닥의 흥정과 다름없었다.

80년대 한국 성장의 중심에는 90년대에 와서야 서서히 명백하게 드러나기 시작한 모순이 있었다. 근대화, 산업화, 그리고 서구 따라잡기라는 과제에 매달리기 시작한 60년대 이래 우리 국민은 자신들의 희생이 다음세대의 삶을 더 좋고 편안한 것으로 만들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열심히 노력하였다. 자본이 축적되었고 기술도 세련되어 간다.

그리고 건축은 그 중심에 있어 왔다. 그러나 부끄럽게도 그 틈새에 유착, 뇌물관행, 부정공사 등은 오랫동안 건설업계를 특징지어온 요소이기도 했다.

부의 축적수단으로서의 건축이란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음이고 주지하다시피 건설현장의 주변은 부정과 부패의 온상이 되기 십상이다. '한국사회의 부패 및 청렴도에 관한 국민의식' 조사의 부패관행에 대한 설문결과, 부끄럽게도 '건축 등에서 공무원에게 금품향응 제공해 혜택' 이 가능 83.5% 불가능 13.3%로 '기업이 정치인에게 정치자금 줘서 세금 등 혜택'에 이어 2위를 차지하고 있다. (6월 7일자 동아일보/한국사회 부패지수)

조사 결과대로 세무주변과 함께 두 번째라면 서러워할 만큼 건축행위 주변의 부정부패는 오래 전부터 우리사회에 고질병처럼 통념화 되어있다. 더욱 더 우리의 발목을 잡는 것은 이러한 부정부패의 도덕 불감증의 만연으로 누구도 그 일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괴변을 방패삼아 후안무치의 작태들이 날 뛰어도 모두들 눈감고 입을 닫고 있다. 돌을 들어 칠 사람이 없을 것이니 버틸 때까지 버티 보자는 막가파와 별 다를 바가 없다. 이렇듯 우리의 건축은 경제의 논리 그리고 힘과 퇴폐적 의리가 가치로 인정되는 깡패의 논리에 의하여 계속 지배받을 것이다. 오히려 문화예술의 탈을 벗는 것이 안으로 깊어지는 화농을 발견하기 쉬울지도 모른다.

우리의 건축이 별 볼일 없는 버나클라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또 하나의 고질병은 우리건축에 오리지널리티가 없다는 점이고 그걸 위한 창조적 노력이 바보짓같이 취급되는 풍토이다. 잡지를 베끼고 가서 보고 베꼈다. 문제의 심각성은 어렵지만 한 기술의 성실한 계발이나 건축이론의 여과는 단적으로 밀어놓고 깡뎅이의 일부만 적당히 베끼는 점이다. 무슨 프로젝트가 있으면 으레 이 자료수집을 위한 해외여행을 다녀오는 것이 관행이 되었고 건축자들은 특히 공공기관에서는 선진 해외사례를 베끼라고 공공연히 요구하는 것이 관례를 넘어 의무이기까지 했다.

#### 이영미의 우리문화의 이식성(移植性) 논리를 들여보자

“우리대중문화의 이식성은 단지 외국의 예술문화를 받아들였다는 문제가 아니다. 외래 예술문화가 그 시대 그 분야의 가장 중심적 경향을 주도하고 예술언어나 양식 등 핵심적 요소에 지배적이고 주도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교과서의 구실을 한다는 점, 그 외래문화의 수용이 정상적인 상호교류가 아니라 일방적이라는 점, 그 수용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서 예술발전의 단계마다 자생적인 창의력에 의존하지 않고 발전이나 변화의 실마리를 외국 예술문화로부터 받아들이는 반면 이전까지의 예술문화들은 낙후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점이다. (중략) 이식의 대상은 단지 외국의 예술이 아니라 '선진국' 즉 '강자'의 예술이며, 그 이식을 앞서서 담당한 주체들은 우리 나라 안에서 최고의 선진성의 평가를 얻게 된다. 즉 강자가 된다. 따라서 이식은 단지 한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문화가 옮겨오는 단순한 현상이 아니며, 국내의 문화적 바탕과의 관련 속에서 이루어지는 복잡한 현상이며, 사회적으로 보아 후진국 지식인과 서민 모두가 지니고 있는 강한 열등의식이나 계층상승적 욕망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한때 건축대전에서 대통령상을 받은 작품(?)이 어느 외국대학의 학생작품을 그대로 베낀 것으로 들통이 나는 웃지만은 못할 사건이 있었지만 그 사람은 아무 탈없이 지금도 잘 지내고 있다. 누구나 베끼기 때문에 그 또한 서로 봐 주는 좋은 게 좋다는 예외와 의리를 지킨다. 건강한 대화가 없고 창조적 비평의 풍토가 성숙할 리 없고 창조적 건축을 생성시킬 자생력이 없다.

본래 윤리란 것은 중산층에만 있는 것이라 신자유주의 경제체제 하에서 20 대 80의 사회로 재편되어 중산층이 사라져 가고 있으니 도덕불감증마저도 사라져서 애써 지키기로 제정한 건축사현장은 그저 박물관에 보관된 지난날의 유품이 될 것이다.

건축문화의 해에 건축사 현장을 다시 읽는다.

1. 건축사는 조형창작 예술인으로서 창의력을 발휘하여 건축문화창달에 이바지한다.

1. 건축사는 국민의 쾌적한 생활공간과 환경의 개선을 위하여……